

(주)한수강기철 대표이사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힘의 원천이다. 또한 각종 산업과 인간생활의 영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다. 이러한 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70년부터 수처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와 국내 최대의 수처리전문업체로 우뚝선 주식회사 한수. 그곳에는 지난 75년 사원으로 입사해 올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강기철 사장이 있다. 전 종업원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는 강대표이사는 최근 21세기를 맞아 'RACE 21'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물사랑 25년의 그를 만나 경영철학과 향후 한수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

수처리분야 Total Management 될 터

”



1. (주)한수에서 오랫동안 재직해 오셨는데 간단한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한수는 1974년 설립되어 수처리 분야에 있어 일본 최대 기업이며 World - Wide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KURITA공업(주)와 기술 및 자본합작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찍이 물, 특히 환경분야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각종 공업용수 및 폐수와 관련한 설비 보호나 환경보전 측면의 여러 가지 약품개발과 처리 Program의 선진 기술 도입, 보급과 이의 응용을 통한 국내 기술의 토착화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30여년에 걸친 이러한 노력으로 당사는 항상 업계 선두의 위치에 서서 여러 선도적인 방향 제시를 해 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큰 자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이미 ISO 9002 및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당 업계 최초로 과학기술처인가 기업 부설 종합연구소를 설립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의 응용 개발과 더불어 “물과 환경의 Total Solution”을 지향하는 활발한 연구 개발 및 다각적인 사업 확대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95년 통상산업부 주관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하였고, 97년 경기도 선정 최우수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그동안 축적된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다양한 Needs에 대응한 여러 가지 미래 지향적 과제 - 물의 재활용, 수처리 공정의 자동 평가 및 원격 관리 시스템, 환경친화적 약품의 개발 - 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회사를 이끌면서 가지고 계신 경영철학이 있다면?

제 나름대로 3가지 정도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가치중심의 경영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사를 이루는 모든 주체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즉 모든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얻어지는 성과와 가치를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투명경영입니다. 이는 경영의 모든 과정이 공정명대하게 열려 있어야 하며, 그 경영성과에 대한 분배가 회사의 모든 주체에게 공평,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재의 중시입니다. 기업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사람이기에 공정한 인사원칙을 통한 자기 계발 의욕의 고취, 지속적인 복리후생의 확충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재도약을 위한 경영혁신운동 “RACE 21”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최고의 수처리 전문회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 경영시스템 및 패러다임을 꾸준히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3. 국내 환경관리현황을 나름대로 평가하신다면?

최근 몇년동안 환경과 관련하여 각계의 관심과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Needs와 접목되어 여러 부분에서 환경개선 및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인식과 투자의 필요성이 인식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일부 능력 있는 대기업을 비롯한 한정된 산업분야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질은 높아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의 문제 등 현실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뒤따라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지요. 아직은 관심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이나 법제도 또한 현실과 거리가 먼 경우도 많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만,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법은 있으나마나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크고 작은 많은 환경 관련 시설들이



설치 후 관리 부재로 방치 또는 부실 관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은 배출 업소의 문제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히 공공 단체의 환경 관련 시설의 경우는 빨리 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하수처리장의 경우 민영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4. 환경업체에 재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70년대 초에, 처음으로 국내 폐수처리를 위하여 고분자 응집제를 도입하여 소개한 것이 저희 한수입니다. 지금은 폐수처리의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 물질의 "응집 효과"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놀라움 그것이었습니다. 그후 Polymer 부문의 꾸준한 연구 개발로 함유 폐수처리를 위한 유기응집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 국내의 모든 정유 공장에 확대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의 하나로 기억에 남습니다.

5. 환경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환경산업의 비전은 물론 밝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와 함께 21세기 세계 경제를 지배할 양대산업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Green Round를 비롯한 국제협약, 서방 선진국들의 무역규제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진국들의 환경관련 기술 독점이 향후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수의 국내 기업들이 환경기술에 능통한 인재를 정책적으로 키워나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전망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환경산업은 현재의 세분화된 역할에서 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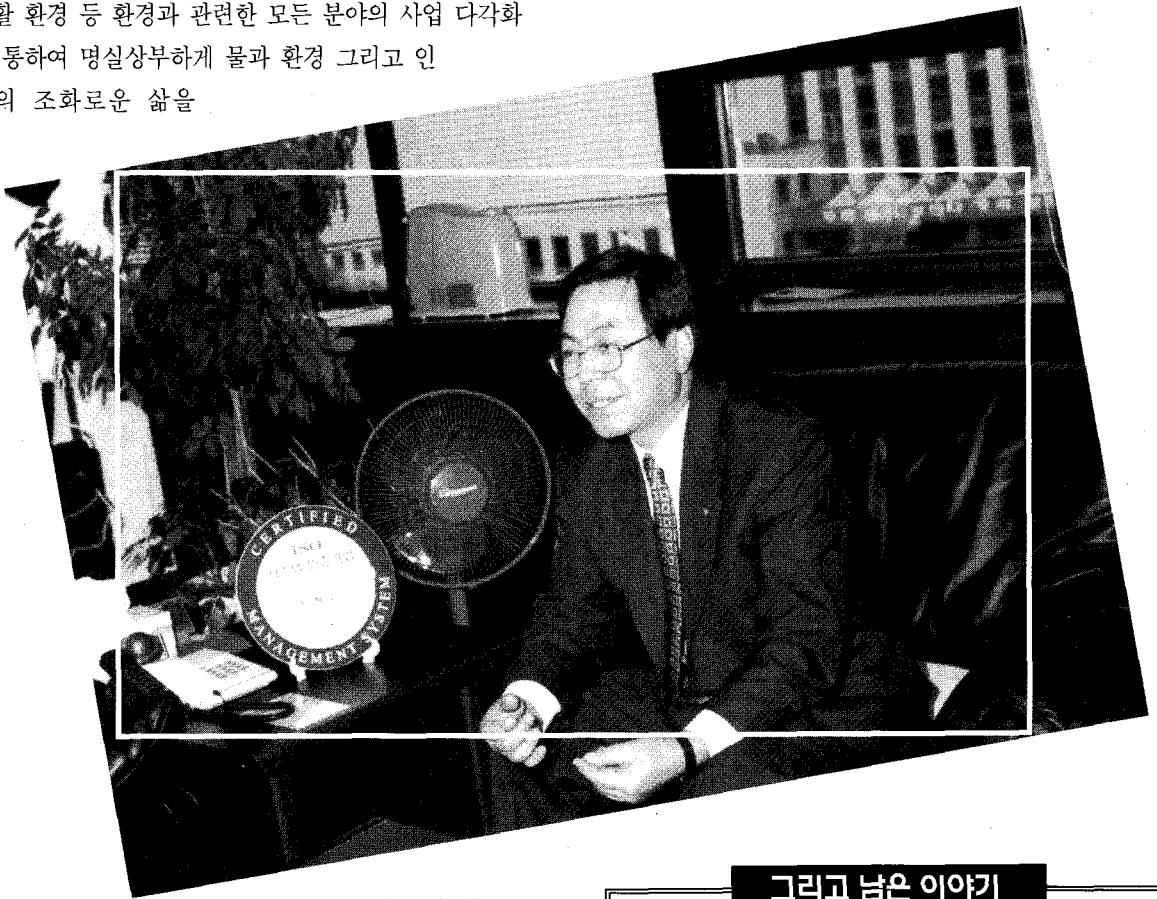
하여 설비의 구축단계에서부터, 약품처리 및 운영 관리를 포함한 모두를 일관 사업으로 가져가는 Total Management 형태로 가져가는 통합화, 전문화 형태로 발전해 나가리라 봅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는 환경산업에 대한 보다 폭넓고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함께 협업 관계를 구축해 갈 수 있는 관련 기업간 전략적 제휴관계를 모색해 나가면서, 본업인 수처리 약품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을 현장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6.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RACE 21"이라는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Responsibility(책임), Ability(능력), Clearness(투명), Efficiency(효율)』을 4대 목표로 하여 전반적인 경영의 틀을 다지고 새로운 기업 환경과 목표실현을 위한 도전에 사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우선 성공적인 RACE 21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환경 분야로 진출해 사업을 다각화해 나갈 것입니다. 30여년 가까운 수처리의 경험과 Know-How를 바탕으로 현재의 수처리 사업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여러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경과 관련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 - Total Management화 - 를 겨냥한 여러 요소의 확충과 개발 - 약품, 설비와 장치, Consulting 등 - 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려 합니다. 또한, 물의 재활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각 공장의 효율적 용수 관리를 위하여 Pinch-Technology (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수질자원의 재활용이 가능한 수질컨설팅 프로그램)기술을 도입, 각 산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 제품의 개발에 주력하여 금명간 암 발생의 인자로 사용이 기피되는 하이드라진의 대체 물질을 도입, 새로운 탈산소제의 생산 보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대기 및 토양,



생활 환경 등 환경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사업 다각화
를 통하여 명실상부하게 물과 환경 그리고 인
간의 조화로운 삶을



그리고 남은 이야기

추구해 나가는
선두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수
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내실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 추구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계획을 실행
해 가면서 향후 1-2년내에 기업을 일반에 공개하여 보
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한수의 위상과 내재가
치를 심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강 대표이사는 69년 용산고 졸업, 73년 서울대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졸업 후 한수에 입사했다.
92년 이사로 취임, 올 3월 대표이사에 이르기까
지 그의 물사랑은 끝이 없다.

아직도 물이 아까워 함부로 쓰지 못한다는 그는
기업인들의 경영마인드가 환경으로 점점 변하고
있어 한없이 밝은 게 환경사업이라고 한다. 이제
껏 쌓아온 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
식으로 최고의 수처리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고 다짐하는 그를 보며 21세기의 환경비전을 볼
수 있었다.